

제주기상 천년을 향한 백년의 발자취

- 제주기상의 미래와 기후 위기의 해법 찾는다! -

- 제주지방기상청(청장 전재목)은 제주기상 100주년을 맞이하여 4월 28일(금) ‘제주기상 100주년 기념 문화제’를 개최했다.
- 1923년 5월 1일 제주시 건입동 현재의 위치에서 제주측후소를 창설, 제주기상대(1992년), 제주지방기상청(1998년)으로 변모, 발전되어 100년 동안 기상업무를 수행해 왔다.
- 유희동 기상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제주공항의 항공기 이착륙 시 급변풍으로 인한 항행안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제주시 애월지역에 공항기상 레이더를 설치하여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정확한 예보를 위해 상층의 바람자료를 관측하는 라이더, 윈드프로파일러, 제주 앞바다의 해양기상부이를 3대 설치하는 등 위험기상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기후 위기 시대에 폭염과 한파, 가뭄 등 다양한 기상이변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과 같은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제주도민들과 함께 지난 100년을 기반으로 천년의 미래를 열어 가는데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당부했다.
- 이번 기념식에서는 기상업무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진행되었는데, △ 제주일보 좌동철 편집부국장 등 5명 환경부장관 표창 △ 일영문화유산연구원 박근태 원장 등 5명 기상청장 표창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김나영 주무관 등 5명은 제주지방기상청장을 수상했다.

□ 대토론회(14:00~16:00)는 아스타호텔에서 「제주기상 100년, 기후위기와 제주의 미래」라는 주제로 기상,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와 함께 주제 발표와 패널 토의를 통해 제주의 과거와 현재, 기후 위기의 미래를 대비한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다.

○ 주제 발표는 △제주기상 100년, 기상 이슈와 대응 △기후 위기의 시대, 그리고 제주 △제주의 미래사회 발전과 기상정보의 중요성 순으로 진행되었다.

- 첫 번째 발표자인 제주지방기상청 김충기 예보과장은 1923년 근대 기상관측 이래 산업화, 디지털 혁명 등 사회적 변화를 거치면서 제주 독자적 예보(1993년), 동네예보(2008년), 영향예보(2020년)를 생산하고 지상부터 바다를 아우르는 입체적 관측망을 구성하였으며, 제주 지역의 맞춤형 기후서비스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도심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수요에 따른 대응을 위해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 두 번째 발표자인 국립기상과학원 변영화 기후변화예측연구팀장은 가까운 미래(2021~2040)에 지구 평균온도 1.5℃ 상승하여 추가적인 온난화에 따라 극한고온, 호우, 가뭄의 빈도와 강도 증가 등 극한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고, 재난재해와 연관된 극한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탄소중립, 1.5℃ 지구온난화 제한 목표 및 빠른 시일내에 강도 높은 CO₂ 감축 등 온난화에 적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마지막 발표자인 탄소중립기술원 강민협 원장은 제주의 미래사회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탄소중립 정책과 제도를 설명하고,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기후변화 대응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하여, 제주도 Net-Zero 달성을 위한 기상기후 선도모델의 개발 필요성을 제언했다.

- 부대행사(17:00~19:00)는 제주 북수구광장에서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기상 버스킹 공연, 기상·기후 OX 퀴즈, 기상·기후 만들기 체험 등 다채롭게 구성했다.
 - 기상 버스킹 공연과 기상청 직원의 공연까지 총 5팀이 무대를 빛내줬으며, 관객을 대상으로 기상·기후 OX 퀴즈를 진행했다.
 - 같은 시간 북수구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시 부스에서는 자연환경 에코백 만들기, 나만의 그림톡 만들기, 다육이 화분 만들기 등 기상·기후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며 기후 위기 상황을 다같이 공감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전재목 제주지방기상청장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한 제주기상 100년은 제주도민들과 희로애락을 같이한 감동의 스토리입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100년도 제주도민의 삶이 녹아 든 기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제주기상 100주년 기념 문화제 사진
 2. 제주기상 100주년 기념 문화제 개요
 3. 기상업무 유공자 포상 명단

담당 부서	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	책임자	과 장 김충기 (064-909-3920)
		담당자	사무관 이미희 (064-909-3920)



<유희동 기상청장 기념식 사진>



<대토론회 단체 사진>

□ 행사 개요

- 행사명: 제주기상 100년, 천년의 미래
- 일 자: 2023. 4. 28.(금)
- 주요내용: 기념식, 대토론회, 부대행사
- 장 소: 제주지방기상청(기념식), 아스타호텔(대토론회), 제주북수구광장(부대행사)

□ 세부 내용 및 일정

① 「제주기상 100주년」 기념식

- 일시/장소: 2023. 4. 28.(금) 10:00~11:30/ 제주지방기상청
- 참석자: 기상청장, 정무부지사, 도의회 부의장, 부교육감, 직원 등 약 150명
- 내용: 100주년 기념식, 유공자 포상 수여, 축사, 기념석 제막식 등

② 대토론회

- 주제: 제주기상 100년, 기후위기와 제주의 미래
- 일시/장소: 2023. 4. 28.(금) 14:00~16:00/ 제주아스타호텔
- 참석자: 초청인사, 학계 및 기관 관계자 등 약 100명

③ 부대행사

- 일시/장소/참석대상: 2023. 4. 28.(금) 17:00~19:00/ 북수구광장/도민
- 내용: 음악공연, 기상기후 OX퀴즈, 만들기체험, 기상·기후 사진전시

시 간	구 분	행사 내용	장 소
10:00 ~ 11:00	기 념 식	- 식전 공연과 식전 영상 - 개회, 국민의례, 제주100년사 소개 - 유공자 포상 - 기념사, 축사, 기념 촬영	제주지방기상청 야외 무대
11:00~11:30	제막식	- 기념석 제막식	제주지방기상청 기념석 앞
14:00~16:00	대토론회	- 기념사, 축사 - 주제발표 및 패널토의	아스타호텔(3층)
17:00~19:00	부대행사	- 날씨와 연관된 음악공연 - 기상기후 OX퀴즈 - 기상기후 만들기 체험 - 기상·기후사진전 전시 등	제주북수구광장

붙임 3

기상업무 유공자 포상 명단

훈격	소 속	직급(위)	성명
환경부 장관표창(5)	제주일보	편집부국장	좌동철
	뉴제주일보	기자	현대성
	한라일보	편집국장	이윤형
	제주지방기상청 관측과	주무관	김지희
	제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주무관	이다경
기상청장 표창(5)	(재)일영문화유산연구원	원장	박근태
	JIBS 제주방송	기자	김태인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녹지연구사	김종갑
	제주지방기상청 관측과	주무관	이영주
	제주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주무관	고동현
제주청장 표창(5)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학예연구사	김나영
	우도해운	전무	고창식
	한라산국립공원	주무관	고두현
	제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주무관	서민경
	제주지방기상청 관측과	주무관	서희진